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18, 조엘, 2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세션 18, Joel, Part 2입니다.

Seder는 4월 6일입니다.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꽤 많은 음악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추고 싶다면 출애굽에 대해 춤을 추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기도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만드신 날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에도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신체적 제약의 시대가 빠르게 우리를 휩쓸었다는 코헬렛의 말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당신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는 항상 당신에게 복종하고, 항상 순종하며, 항상 당신의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 헤셀이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외감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이 새로운 학기의 마지막 절반에 헌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요엘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멸망시키러 오는 메뚜기들을 크게 강조하는 이 작은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에서 그는 실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십시오. 한 국가가 강력하고 셀 수 없이 내 땅을 침공했습니다. 즉, 이 메뚜기 떼가 실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0에서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마르고 포도주, 기름, 곡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핵심적인 신학용어는 '주의 날'(Yom Yahweh)이다. 그리고 주의 날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장에서는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1:15 이 첫 번째 발생입니다. 슬프게도 그 날은 주의 날이 가까웠음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 것 같으니라 우리 눈앞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고, 씨앗이 시들고, 창고와 창고가 무너지고, 소들이 신음하며 이리저리 뛰고, 목초지가 없어지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묘사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의 삶보다 더 커 보입니다.

욥 야훼(Yom Yahweh)는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서, 오바다서, 스바냐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 점에 가장 초점을 맞춘 선지자이다. 이는 성경의 큰 신학적 그림을 다룬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공헌이다.

성경의 큰 그림은 올람하자(Olam Hazah), 즉 이 시대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며 세상에 죄와 불의와 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온갖 종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단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5장에서 아모스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앗수르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곰이 그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말하자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악에 대한 역사 속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주님의 날들, 즉 586년에 하나님께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도록 허락하신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과 이스라엘, 특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메뚜기 재앙, 군대의 공격 등은 모두 여러 면에서 주님의 큰 날의 전조이자 전조입니다.

즉,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방문이 있으며, 또한 요엘서 끝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받고, 조롱당하고, 적들에게 압도당했지만,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약, 즉 영원한 계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의 말씀을 사용하면 영원한 언약인 베리트 올람(Berit Olam)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선지자들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통해 그 옹호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들의 심판이 주요 주제인 요엘서 마지막 장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용도 사이에 끼어 있는 즉각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시대를 시작하고 이 땅, 그 시대에서 절정에 이르고 이 땅에 악을 마지막으로 전복시키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계속해서 성경에서 더 읽어 왔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주의 날의 또 다른 용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주님의 둘째 날인 2장 1절에 이 메뚜기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2장의 설명은 잠재적으로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군대의 침략에 더 가깝지만 그는 땅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메뚜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막강한 군대와 같습니다, 2.5. 그들은 돌격할 때 전사와 같습니다. 군인처럼 그들은 벽을 기어오른다, 2.7.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남쪽 왕국의 잠재적인 멸망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쪽 왕국의 세 선지자인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요엘은 남쪽 왕국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힌트에는 내가 방금 언급한 다른 세 선지자의 경우와 같이 그를 특정 왕과 연관시키는 역사적 배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2:1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 경보를 울려라. 그래서 이제 강조점은 이 땅의 영적 중심지인 영적 수도로 옮겨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글썄, 그는 2:15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2:12부터 시작하여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 기도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회개의 외침이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예언의 조건적 성격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2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7.01에서는 예상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산헤립의 남왕국 침공 가능성인가? 2장은 남쪽 왕국의 멸망 가능성에 대해 적절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했고, 2장의 끝의 결과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백성을 멸하시는 대신에 북방 사람을 너희에게서 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공격은 북쪽에서 옵니다. 따라서 북부인들을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군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왔고, 예레미야는 공격이 북쪽에서 오는 동일한 종류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였기 때문에 공격은 북쪽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첫 장이 그것을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여전히 이 메뚜기들이 동해, 즉 사해, 서해, 지중해로 쫓겨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군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 메뚜기들의 결과로 그것은 군대의 패배와 땅의 궁극적인 축복, 비가 오는 것, 땅이 회복되는 것, 먹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따르는 땅에 축복이 따르게 하소서.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주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결정적인 개입이며, 하느님의 현존이 지상 역사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신학적이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나 군대의 침략 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주로 인생에서의 보상과

형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삶이 있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에서 상과 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로 신약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인간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악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은 다 일어납니다.

역사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정론의 위대한 실존적 질문입니다. 하박국에 오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악한 자가 도망하여 형통할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인생의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관한 한 그들은 종종 해석을 했고, 그것이 성경 역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벤트와 해석입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사건을 뜻하는 독일어인 Tat, TAT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단어인 Wort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사가 파라오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든 모든 사건을 나열하고 그의 모든 승리를 기록하고 그의 모든 패배를 피했던 이집트 역사와 상당히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도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뜰에 있는 다윗 나단에게 와서 이르되 아타 하시스가 바로 그 사람으로다 하니 그는 사물을 설명하고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거기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수 있으며, 서기 29년에 예루살렘 언덕에서 한 사람이 죽은 봄에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세기에 로마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유대인 중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돌이킴이 있고,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고치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옵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이 특별한 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모 성전 봉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희생으로, 2주 동안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따른다고 솔로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제 요엘로 돌아가서 2장 28절부터 2장 끝까지에서 발견되는 주의 날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의 네 번째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것이 일종의 서론이고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말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 구절과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묘사되는 세례 받은 3,000명의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눈에 띄게 탄생하는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를 구성했다. 당시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막혀서 누군가가 설교나 성경공부를 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세 동사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메시지를 스스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교회가 나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애드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서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나가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장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교회 시대는 주님의 날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림과 재림의 두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메시아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유월절 세데르를 축하할 때, 이는 두 번째 단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유가 있고, 우리가 축하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거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죄로부터의 개인적 구원을 이해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풀어주신 분, 초급 그리스어를 공부하셨다면 짧고 간결한 멋진 작은 패러다임 동사인 *luo*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영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당신의 삶, 나의 삶, 교회의 삶의 모든 쓰레기를 해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진행 중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조직신학 서적에서 말하는 그 진보는 죽음과 생명을 주는 일, 옛 사람과 그 모든 죄악된 성향과 성향을 점진적으로 죽이는 일, 그리고 새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셔서 우리가 메시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에 협력합니다. 즉, 그것은 점진적인 작업이며 욥 야훼의 2단계,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마지막 개입에서 그분이 시작한 작업을 완료하실 때까지 결코 완전한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요엘서 2:28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성령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는 날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시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정의에 따르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이제 이를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의 날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와 같이 미래의 주의 날이며, 이는 단순히 메시아 시대,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든 2단계든 말이죠. 신약성경 자체가 주님의 날을 사용할 때, 초림은 이미 일어났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오리라고 말할 때,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했습니다. 신약성경 작가들은 파루시아(parousia)에 대해 문자적으로 도래를 의미하는 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묵시록과 함께 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계시, 공개, 주현절,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강조는 신약성서 기자들이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의 완성, 즉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이 여기 요엘서 2장의 끝 부분에 있는 언어를 읽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파니아(epiphania)는 말 그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안티오코스 더 매니페스트 원(Antiochus the Manifest One)에서와 같이 발현입니다.

이제 요엘서 2장 끝부분에서 말했듯이 시몬이 붙잡고 일어나 성령의 시대를 알리고 교회에 처음 세례 받은 삼천 명을 알리는 이 구절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알고 있듯이 칠칠절은 나중에 그리스 이름인 오순절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때때로 사람들이 그를 별명으로 부르듯이 오순절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여기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를 열 때를 말할 때 , 선택된 소수만이 성령을 체험할 것이지만 성령 없이는 당신이 그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당신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순간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쫓겨날 수 없는 임차인이 되어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게 됩니다. 또는 요한1서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들이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사러 오실 때 그 영이 우리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토스, 즉 기름 부음, 즉 마시아흐 대신에 일반적으로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을 수 있었던 기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름 뿔을 다윗에게 붓는 사무엘을 목격합니다. 그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에블라 점토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보다 수백 년 전, 사울, 다윗, 솔로몬 등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왕국. 그보다 수백 년 전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데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언어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구분 없음.

젊고 늙었습니다. 지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분명히 일치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렌즈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가족을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 측면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뒤따르는 사건들은 아마도 오순절에 성취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오히려 두 번째 단계, 즉 재림, 음 야훼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언어, 즉 우주적 표시를 읽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어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매우 시적이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기사, 피와 불과 연기의 물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물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불은 우리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절단된 동물들을 통과하는 햇불.

불은 우리를 불타는 떨기나무와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그것은 다시 메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의 물결. 시내산의 연기가 가마의 연기, 용광로의 연기 같이 올라가나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힌트가 드라마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글에 썼듯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항상 하늘의 신랑에게 와서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 그분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유대인 결혼식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 결혼식은 시내산을 축소판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결혼식이 되려면 양초와 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을 보신 분이라면 모두가 손에 촛불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셨다면, 장대, 아마도 기름에 젖은 누더기를 들고 밖에 서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를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기의 이미지는 심오하게 유대적이며, 신부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늘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의 도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전에 시작하신 언약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키두심(kidushim) 과 니수임(nisuim) 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흥미롭습니다 . 키두심은 법적으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지만 니수임 은 관계의 완성이며 실제로는 육체적인 들어올림, 즉 니수임이 있습니다 .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했다고 말하고 싶다면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nasu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는 태어났다. 물론, 유대인 결혼식에서는 사람들이 어깨에 올려져 행진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의 절정과 현대 세계에서 때때로 우리가 약혼과 결혼에 대해 분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실제 정점,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메아리는 우리를 큰 의식인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표적을 봅니다.

태양은 어둠으로 변했고, 달은 으스스한 붉은 피로 변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예수님의 유명한 감람산 설교(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말씀하십시오.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체가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의 능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언어와 관련된 것은 종말, 즉 시대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성령 부어짐을 다루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시대, 오순절 날에는 그것이 다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오심과 그 일이 포함된 일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요한은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키가 있고 타작 굴을 청소하여 밀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의 완성이다.

그리고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요한이 이것이 오실 이 분이 하실 일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언어는, 이 특정한 키질의 경우에, 키질용 포크는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는 가벼운 쭉정이가 한쪽으로 몰리고 무거운 밀알은 그 모든 것을 공중으로 던지는 자의 발 아래로 떨어집니다. 선과 악의 분리. 이것의 또 다른 버전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분리입니다.

선과 악의 분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며, 이것이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차원, 시작, 완성, 이 주님의 날에 관한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요엘 2장에는 종말론과 역사, 일종의 우리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주님의 날 마지막에 그가 인도하는 것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나는 교회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에 대해 거만하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않는 곳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서의 특정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 구약성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게 되면 신약성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불쌍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들에게서 매우 강력하게 읽은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예언적 신탁,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조셉 클라우스너(Joseph Klausner)가 위대한 유대인 예수에 관한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학자가 1925년에 이 책을 출판한 이후, 교회는 슬프게도 히브리어 성경의 지리적, 정치적, 지상적 차원을 제거했으며 이 언어의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만들고 우화화했으며 이 세상과 이 세상적인 희망에서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백성의 입증이라는 이 주제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물리적으로 부르셨다면 그 결과는 바울이 로마서 11:25-27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구원 또는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단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누적적인 방식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의 이때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원이라는 것은 결국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출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의로운 남은 자들이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2:32에서 요드헤바브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그를 아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건설되는 사건이다. NT Wright와 같은 학자들조차도 최근 출판물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사망 당시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사야 65-66장에서 말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된 땅은 신자의 궁극적인 운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갱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땅의 모든 나라 앞에서 변호하시는 언어의 회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여호사밧을 뛰어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약 시대의 이 왕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이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심판,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일지, 요한계시록이 모든 전쟁의 어머니인 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에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은 거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세기 동안 반유대주의를 실천해 온 사람들입니다.

2절: 그들이 내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흠뻑내니라. 그들은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서 제비를 뽑아 남자아이를 매춘부로 바꾸고 여자아이를 포도주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국가의 주제에 반대하여 이 신을 심판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잔인한 압제에 대한 보복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선택, 언약, 선교, 옹호에 관한 그들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마지막 단어인 옹호는 절망과 우울증이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의 어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우리는 다시 유월절 세데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역사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또는 존 브라이트(John Bright)가 즐겨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성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아직 BC주에 한 발 남았습니다. 우리는 BC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통치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가 구하고 기도하는 불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지상적 의미에서 구원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BC-ness가 필요합니다. 요엘이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이사야 2장에서 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드라." 여기에서는 이사야 2장의 앞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의 다른 이면에 대해 말합니다.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말은, 그것이 궁극적인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의 측면에서는 내가 열국과 합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날의 마지막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3장 14절에서 주님의 날의 궁극적인 사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데려가나요? 시대의 끝, 재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 악이 제거될 것이다. 언어는 시적이고 극단적이며 과장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언덕에는 우유가 흐를 것입니다. 계곡은 물과 함께 흐릅니다. 그리고 책은 어떻게 끝나나요? 에스겔의 예언도 마찬가지로 끝난다.

주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의 미래는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끝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 안에 넣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거하시려는 것은 세련된 새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감람나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합류한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를 협상하는 총과 원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오랜 중동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이지만, 누가 평화의 왕인지를 인정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세션 18, 조엘 2부입니다.